



순창군이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클린순창운동을 통해 올해 폐농약병 14만 7천병, 폐비닐 457톤 수거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 클린순창 운동 효과 만점

### 폐농약병 14만 7천병 · 폐비닐 457톤 · 폐형광등 3970개 등 수거

순창군이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클린순창운동을 통해 올해 폐농약병 14만 7천병, 폐비닐 457톤 수거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폐비닐 수거는 지난해 394톤 대비 63톤이 증가했고 폐농약은 지난해 8만 천개보다 6만 6천개를 더 수거한 실적이다.

군은 폐비닐과, 폐농약병 이외에도 올해 클린순창 운동을 통해 폐형광등 3,970개, 폐건전지 503kg, 폐의약품 304kg 수거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까지 공식 집계된 실적으로 올해 12월이면 실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군측은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클린순창 운동이 성과를 나타내는 데는 관 주도에서 유관기관과 각계각층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간 운동으로 확산된데 그 이유가 크다.

실제 순창군은 클린순창운동과 행복출시 입양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면서 올해 47개 사회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하고 민간주도로 정해진 구역을 책임지고 깨끗하게 하는 환경 정화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단체 참여인원만 1,000여명을 이미 넘어섰다.

관련해서 지난 11월 30일에는 연합회 정기총회도 진행됐다.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연합회의에서

는 매월 1회 이상 단체별 정화활동에 힘쓸것과 꽃길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일에는 올해 10월까지 11개읍면 클린순창 운동성과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추진 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포상도 진행됐다. 공동 1위는 동계, 유등, 풍산, 팔덕, 구림 5개면이 차지했다.

황숙주 군수는 "군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클린순창 운동이 민간과 함께 추진하는 운동으로 전환되면서 성과 또한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춘향교 내진보강 사업 착수

###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반영의 중요성 추진

남원시가 춘향교 내진보강을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지난 가을부터 경상북도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반영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남원시에서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인 춘향교에 대해 내진보강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부터 내년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춘향교는 준공 시 차량 하중이 2등급인 DB-18(32.4ton)로 설계되어 대형차량의 통행에 어려움은 물론,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시민의 안전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내진보강과 동시에 1등급 교량으로 성능개선을 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는 남원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통행 중에도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특수공법과 정밀한 장비 등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춘향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1등급 교량인 DB-24(43.2ton)으로 개선되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지진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남원=유영철 기자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 고창소방서, 폭설대비 긴급구조

### 기상특보 발령시 단계별 경계 · 대응태세 강화

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겨울철 폭설, 기온급강하 등 기상악화에 따른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해 12월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폭설대비 긴급구조종합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인명구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폭설,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단계별 경계 및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특별경계근무 등을 통해 소방력을 확대 운영해 취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예찰활동,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로 발 빠른 대응시스템을 가동한다.

폭설시 고립 예상지역은 우회도로 등을 사전에 파악해 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상습결빙구간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주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창소방서 구조구급대원은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최근 3년간 출동건수를 분석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15개소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히 주민 안전의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고창군 흥덕면에서 제하사거리 지나 정음방향으로 가는 도로는 상습결빙으로 내리막길로 과속의 우려가 있으며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로 갈 때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빈번해 매년 사망사고를 비롯한 교통사고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며, 고창군 상하면 검산리 일대는 등당지역으로 결빙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현황을 파악해 고창소방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립도서관, 인간관계 갈등 요리법 특강

### 이병창 목사 강의

임실군립도서관은 지난날 3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인간관계 갈등 요리법'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올빼미 도서관’의 일환으로 군립도서관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은 독서동아리 회원 및 군민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몸의 심리학’, ‘에너그램을 넘어 데카그램으로’의 저자 이병창 목사가 강사로 나서 사람의 관계 이야기, 책 이야기 등을 담백하게

풀어내고 질의응답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도서관은 특강 뿐 아니라 전라놀이기지도사 자격증반, 청소년 푸름이꿈상제작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특강 및 문화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http://www.imsil.go.kr/>) 또는 군립도서관(☎640-2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모의돌리다

# 남원준법센터, 김장 담그기 봉사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현)는 지난날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사명령 협력기관인 남원시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사람의 김장 담그기’ 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말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 남원준법지원센터 사회복지협력기관인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남원사회복지관, 스마일빌 등 3개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22명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다.

남원준법지원센터 김용현 소장은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에는 따뜻한 손길을 전달하고 사회복지사명령 대상자에게는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공동체 일원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연말 연시를 맞아 사회복지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한 민생지원형 사회복지사명령 집행을 지속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경찰, 수렵활동 홍보활동 전개

순창경찰(서장 최규운) 썬치파출소(소장 서정선)는 수렵기간(~2. 28.)동안 수렵인들에게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안전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한 수렵활동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 했다.

특히 지난 14일 읍주 적밭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염총을 들고 파출소에 난입해 경찰관을 향해 산탄 2발을 난사한 사건을 계기로 파출소에서도 총기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수렵인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총기사용을 위한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강조했다.

썬치파출소 서정선 소장은 “수렵기간 중 총기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총기입출고시 안전교육과 현장안전확인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다하여 인명사고 예방과 가족보호 등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자원순환 실적 최우수 선정

임실군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복도가 추진한 '2016년도 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복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쓰레기 줄이기 추진 실적과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이바지한 결과를 평가해 총 6개 시·군을 선정했으며, 군은 지난해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와 함께 도지사 기관표창과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군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통한 쓰레기발생량 감소(전년 대비 10%이상),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자원순환 실천마을 시범조성 등의 추진 사례와 오는 2017년 1월부터 '생활쓰레기 전주권소각지원센터 반입협약'에 따른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이행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자원 재활용 분야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아산면, 사랑나눔 행사 '할발'

웃음을 여미게 하는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고창군 아산면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아산면 선운산농협(조합장 오양환)과 아산면 농가주부모임(회장 서금자) 회원 등 50여명은 1일 선운산농협 아산점 앞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담근 500포기의 김장김치는 면내 어려운 이웃 50가구에 전달되어 훈훈한 정을 나눴다.

한편 아산면 새마을부녀회에서 2일 아산면사무소 광장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가 열릴 예정이며 40여명의 회원들이 6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그고 경로당과 홀로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